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6 June_Vol.161





Cover story

고객과 ‘함께’ ‘더 멀리’
‘동반성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첫날은 삼정KPMG의 창립기념일입니다. 그동안 삼정KPMG는 고객과 함께 건강한 성장을, 임직원들과 함께 행복한 일터를, 더 나아가 신뢰받는 조직을 이뤄왔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의 속담 중 하나입니다.

삼정KPMG는 조금 느리더라도 임직원들과 함께 건강한 회계업계를 선도하며, 고객의 성공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객과 사회로부터 ‘Clear Choice’가 될 때까지, 삼정KPMG는 혁신과 도전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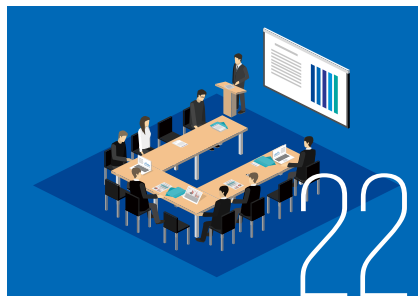
June 2016 Vol.161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CEO 창립기념사**
한마음 한뜻으로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를
함께 이뤄갑시다!
- 06 **Team Spirit**
삼성KPMG 부동산(Real Estate) 팀
- 08 **Client+**
대한제강
- 10 **Market Reader**
소비 트렌드를 이해한 기업이 소비침체 극복할 수 있다
- 12 **Excellence Report**
CEO COLUMN / ADVISORY

행복한 일터

- 15 **Culture Relay**
사랑하는 삼성인을 칭찬합니다!
- 16 **축하해! 삼성KPMG**
삼성KPMG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18 **Talk! 연결고리**
세상 어디에도 없는 슈퍼우먼, 삼성KPMG 워킹맘
- 20 **이색삼성★**
춤추는 회계사 ICE2본부 백승인 S.Senior
- 22 **Purpose Story**
'Our Higher Purpose!'
- 24 **가자 세계로!**
광활한 대륙의 나라, 중국
- 26 **행복충전소**
확~ 달라진 삼성KPMG! 그 기분 좋은 변화 속으로
- 28 **Samjong News**
'FY15 EF온라인스쿨 연간학습우수자 시상식' 개최 外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디자인 홍보팀(02-2112-7567) 제작·인쇄 네오메디아(02-512-1666)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를 함께 이뤄갑시다!

친애하는 삼성KPMG 가족 여러분,

삼성KPMG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삼성KPMG는 타협 없는 클린 펌(Clean Firm) 경영으로 회계업계를 바르게 선도하며, 고객 성장과 대한민국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 155개국의 KPMG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세계화 전략을 지원해왔습니다.

함께 쌓아온 이러한 노력을 밑바탕으로 하여 우리 모두 상하 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과, 삼성 KPMG는 지난해 10%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지난 4월 삼성KPMG는 FY2016 사업전략 발표회에서 한 발 앞선 성장을 위한 중장기 목표인 ‘Vision 2020’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품질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며, 원칙에 충실하고 자본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회계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단합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Vision 2020’의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아갑시다.

‘건강한 성장’으로 고객과 사회의 발전을 이뤄갑시다!

삼성KPMG는 창조와 혁신, 열정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발전에 발 맞추며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이끄는 ‘건강한 성장’을 이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고객과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솔루션을 제시해 갑시다. 또한 Function과 각 본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시장 변화에 맞춘 신상품을 개발하며, Business Development 경쟁력을 강화해 갑시다.

‘행복한 일터’로 가장 일하고 싶은 법인을 만듭시다!

삼성KPMG는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며, 모든 소속 구성원들이 높은 자부심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일하고 싶은 법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법인의 자산은 ‘사람’이며 삼성KPMG가 성장해온 것도 소중한 인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버리는 기단녹장(棄短錄長)의 원칙 하에 인재를 소중히 여기며, 업무환경 개선, 해외교육 확대 및 복지 증진을 부단히 실천해 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즐겁고 싶어지는 회사가 되는 그 날까지 함께 행복한 일터를 일구어 갑시다.

원칙에 충실한 ‘신뢰받는 조직’을 만듭시다!

‘Do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way!’ 고객과 사회에 ‘신뢰받는 KPMG’로 나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임직원 모두 높은 전문가적 윤리



의식을 갖추고 올바르게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를 출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지원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삼성KPMG는 '클린 펌 원칙'으로 업계에 모범이 되며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책임의식, 사명감을 갖고 우리 사회와 업계 발전을 위해 힘써 나아갑시다.

삼성KPMG 가족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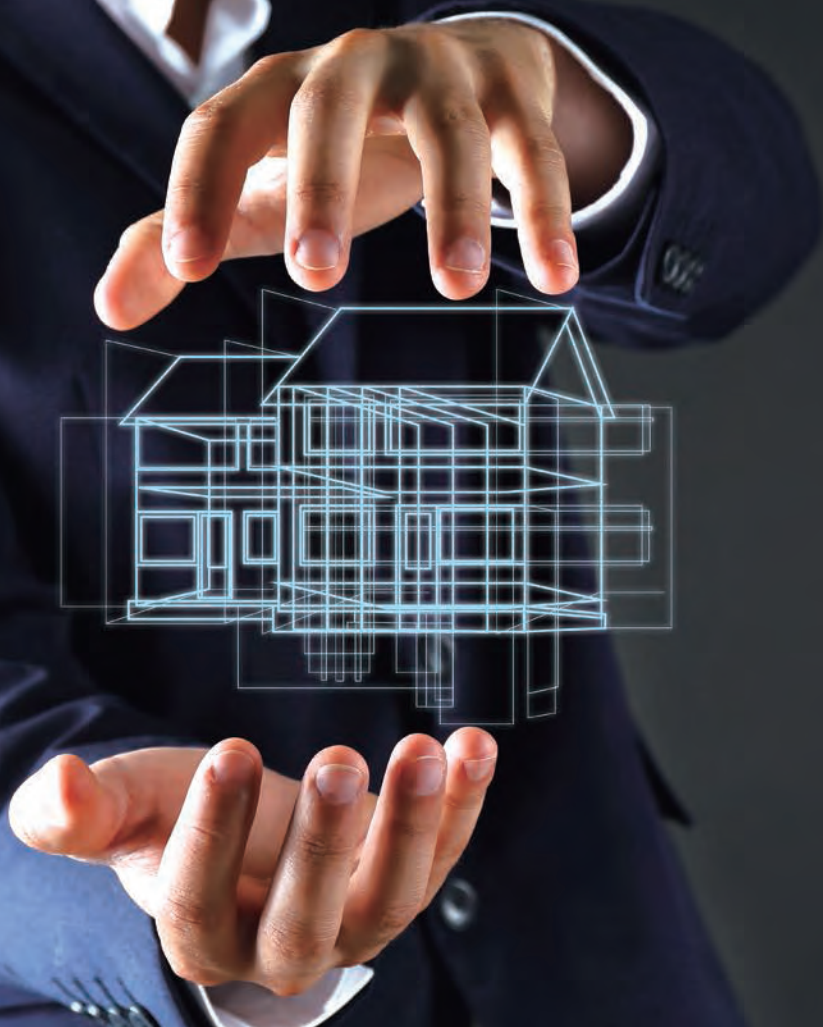
도산 안창호 선생은 '흔히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기회

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삼성KPMG는 앞으로도 찾아오는 기회를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발굴하며 한 발 앞선 성장을 이뤄갈 것입니다. 우리의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 번 법인의 성장을 위하여 땀과 열정을 쏟고 계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KPMG CEO 김교태



부동산 종합 서비스 전문가 집단 삼성KPMG 부동산(Real Estate) 팀

국내 부동산 시장은 대체투자자금의 유입, 시설의 복합화와 대형화 트렌드에 따라 수년간 급격히 성장해왔다. 이에 고객은 더욱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삼성KPMG 부동산(Real Estate) 팀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부동산 전 분야에 대한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부동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 서울 오피스 매매시장 활성화 전망

정부의 세제혜택과 기관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증가에 힘입어 부동산 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왔다. 지난 2005년 2.5조에 불과했던 부동산 펀드가 10년 만에 29.7조 수준으로 1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부동산 펀드는 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서울 소재 오피스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010년 전후로 설정된 펀드들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펀드 청산을 위한 오피스 매물이 대거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돼 서울 오피스 매매 시장이 활황을 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기업구조조정 이슈에 따른 기업 본사 사옥 매물과 맞물

려 일시에 다수의 매물이 시장에 공급됨에 따른 매물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있다. 매도자 간의 경쟁으로 인해 펀드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장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매각 마케팅은 물론 수익개선, 책임임차, 매각 시기 조율 등 다양한 매각전략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자 측면에서는 CBD, YBD, GBD로 대표되는 주요 오피스 밀집지역의 공실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향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롯데 슈퍼타워, 파르나스타워 등 최상(Prime)급 오피스 공급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여 현재 매수 가격이 적절한 수준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

삼성KPMG 부동산 팀은 급성장 중인 국내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매각 가치 극대화 방안 검토, 투자자 마케팅을 위한 TM/IM 작성, 기업 고객과 자산운용사 등 유력 투자자에 대한 마케팅, 거래 협상 및 계약 체결 자문, 고객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Long list 작성, 자산별 적정가치 검토를 통한 Short list 매수후보 자산 선별을 통한 '매각 및 매입 자문', 투자 계획에 따른 시장조사, 예상 수입/비용 검토, 사업에 적합한 적정 재무구조 검토, 사업성 제고 방안 검토를 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 기업 보유 부동산 최유효 활용 방안 검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부동산 전략 수립, 부동산 사업 계획 수립 자문을 위한 '기업 부동산 컨설팅', 골프장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골프장 구조조정 자문, 골프장 매입/매각 및 유동화 자문을 하는 '골프장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KPMG의 부동산 팀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2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다수의 공인회계사는 물론 감정평가사, 부동산 컨설팅 전문인력, 골프 산업 전문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까지 합류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인력 Pool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팀원들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기시간을 활용하여 어학공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기계발을 충실히 수행 중이며 음악, 운동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한 자기충전을 통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부동산 팀은 대우송도개발사업부지, 종로타워, 신한증금 사옥 등 거래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난이도가 높은 부동산 Deal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잠실종합운동장부지, 용산국제업무지구, Parc1 등 초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문을 수행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고객이 만족하는 부동산 전문가 집단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은 자산 매입, 개발, 운영 그리고 매각의 Cycle을 통해 마무리 된다. 그동안 부동산 팀은 개발과정 전반에 걸친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구조 수립, 매입/매각 자문을 통해 고객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지원해왔다. 현재도 자산의 매입/개발에 필요한 Financing 조달,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전략 자문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 중이다.

부동산 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부동산 개발 전반의 PM(Project Management)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된 Total Service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문가 집단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청춘 RE(Real Estate)'라는 슬로건으로 젊은 열정의 패기와 즐거움으로 무장한 삼성KPMG 부동산 팀, 더욱이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이들이기에 고객이 만족하는 업계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삼성KPMG 부동산 팀 주요 서비스

매각 자문	매각가치 극대화 방안 검토 투자자 마케팅을 위한 TM/IM 작성 기업 고객, 자산운용사 등 유력투자자에 대한 마케팅 거래 협상 및 계약 체결 자문
매입 자문	고객 NEEDS에 부합하는 LONG LIST 작성 자산별 적정가치 검토를 통한 SHORT LIST 매수후보 자산 선별 거래 협상 및 계약 체결 자문
사업 타당성 검토	투자 계획에 따른 시장조사 예상 수입/비용 검토 사업에 적합한 적정 재무구조 검토 사업성 제고 방안 검토
기업 부동산 컨설팅	기업보유 부동산 최유효 활용 방안 검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부동산 전략 수립 부동산 사업계획 수립 자문
골프장 컨설팅	골프장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골프장 구조조정 자문 골프장 매입/매각 및 유동화 자문



CONTACT US

삼성KPMG 부동산 팀

권준석 상무이사

Tel. 02-2112-0735 E-mail. joonseokkwon@kr.kpmg.com

진형석 이사

Tel. 02-2112-7745 E-mail. hyungseokjin@kr.kpmg.com

Client+

DaehanSteel

Make the Invisible Visible

보이지 않는 것로부터 보이는 가치를 창출하는 대한제강

1954년 6월 처음 설립된 대한제강은 올해로 창사 63주년을 맞이한다. 대한제강은 부산을 거점으로 60년 이상 제강 산업을 일궈왔다. 무엇보다 고객 만족을 위한 차별화된 가치 창출을 위해 엄격한 품질 관리와 고객과의 약속 준수라는 비즈니스의 기본에 충실하며 건설경기 불황과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하며 연매출액 1조 원, 판매량 100만 톤 이상을 달성하는 밑바탕이 됐다.

제강사 최초 스틸 솔루션 브랜드 'FrameWorks'

제강사 최초로 2010년 '스타즈 솔루션' 브랜드를 도입한 대한제강은 2014년 한층 진화된 솔루션 브랜드 'FrameWorks'를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FrameWorks'는 획일화된 솔루션에서 탈피하여 개별 고객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건설사의 로스율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의 이점 제공을 통해 건설사와 제강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철근 생산에서부터 가공, 배송 관리까지 서비스 하는 '스타즈 솔루션'은 건설사에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공하고 현장에 입고해 불필요한 현장 관리 비용을 줄여 공사 원가 절감, 공사 기간 감축, 보유재고 감소로 인한 현금 흐름 효율화 등의 효과를 제공했다. 더 나아가 'FrameWorks'는 서비스의 개념을 넘어 진정한 스틸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한다.

고객의 상황을 예측 분석하여 최적화된 건설자재 플랜을 제공하고 공사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 관리해주는 솔루션 브랜드로 업계 최초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제강은 고객의 필요에 집중한 연구개발로 코일철근(Bar In Coil)을 국내 최초로 시장에 도입, 상용화했다. 코일철근은 철근을 원형으로 감고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해 운반·사용할 수 있어 일반철근보다 가공 시 생산성이 높다. 공장 가공에 특화된 코일철근은 자동화 설비를 통한 생산 효율성 극대화, 인건비 절감, 철근의 가공 손실 및 사용량 감축, 적절한 재고관리, 적재공간의 효율적 사용 등의 다양한 이점을 가진 신개념 철근이다.

성실과 혁신을 통한 차별화된 가치 창출

대한제강은 성실(Integrity)과 혁신(Innovation)을 바탕으로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해왔다. 2002년 제강사 최초 ERP 프로젝트 완료, 2005년 제강사 최초 신제품(SD500) 브랜드화, 2010년 제강사 최초 솔루션 브랜드 도입 등 항상 '혁신'을 기반으로 고객을 위해 '최초'라는 수식어를 선사해온 대한제강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누구라도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임직원과 지역이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

대한제강은 노사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상생을 강조하며 노사분규 없는 아름다운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외환 위기 시에도



1 임직원들의 현장 전담 관리 모습
2 대한제강 부산지사 로비 전경

인원 감축 없이 직원과 한마음으로 위기를 헤쳐온 대한제강은 상생의 노사 문화를 창조하며 2008년 노사 상생협력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나아가 2012년 제4회 부산고용대상, 2013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고 2014년에는 부산시 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다방면에서 노사 상생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한제강은 매년 회사와 임직원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하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SteelHeart Scholarship은 훌륭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도에 시작된 장학사업으로 부산시 사하구, 강서구 지역의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을 선발하여 매년 개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난 7년간 131명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이외에도 대한제강은 김장 행사를 비롯하여 전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내에서는 직원들의 친목을, 사외로는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비 트렌드를 이해한 기업이 소비침체 극복할 수 있다

한국경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저금리·저물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소비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부진한 데다 소비마저 위축되어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과 수익 확보를 위한 고민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 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제기된다.

소비위축과 경제회복 지연

민간소비 위축은 경제회복 지연으로 연결돼 2015년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보다 소비가 더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은 2000년대 말까지 77%대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15년 3분기에는 71.9%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 향후 소비지출 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10년 1월 115p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3월 100p를 기록했고, 소비지출전망지수도 2010년 1월 113p에서 2016년 3월 105p로 하락했다. 향후 경제적 여건도 비관적으로 전망하며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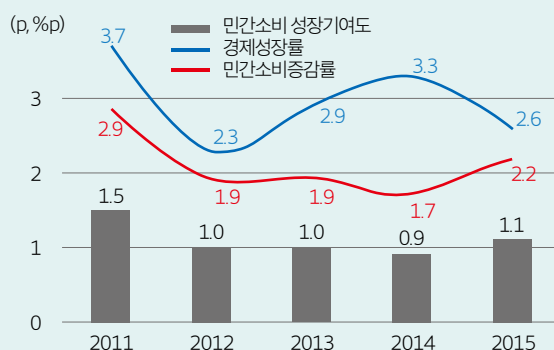
메가 트렌드와 소비패턴의 변화

기업이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패턴 변화를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패턴은 메가트렌드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사회, 기술, 환경, 경제, 정치 각각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메가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정성적 분석 방법론(STEEP method)을 이용하여 국내 주요 메가트렌드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기술적 측면에서는 ICT 보급 확대 및 핀테크 고도화가 트렌드로 나타났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웰빙·힐링 및 개성추구가, 경제적으로는 고용·소득 불안과 부의 양극화가 주요 이슈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 및 자유무역주의 확산이 메가트렌드로 나타났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은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11가지 소비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는 'CONSUMPTION'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온라인·모바일을 비롯해 모든 플랫폼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하는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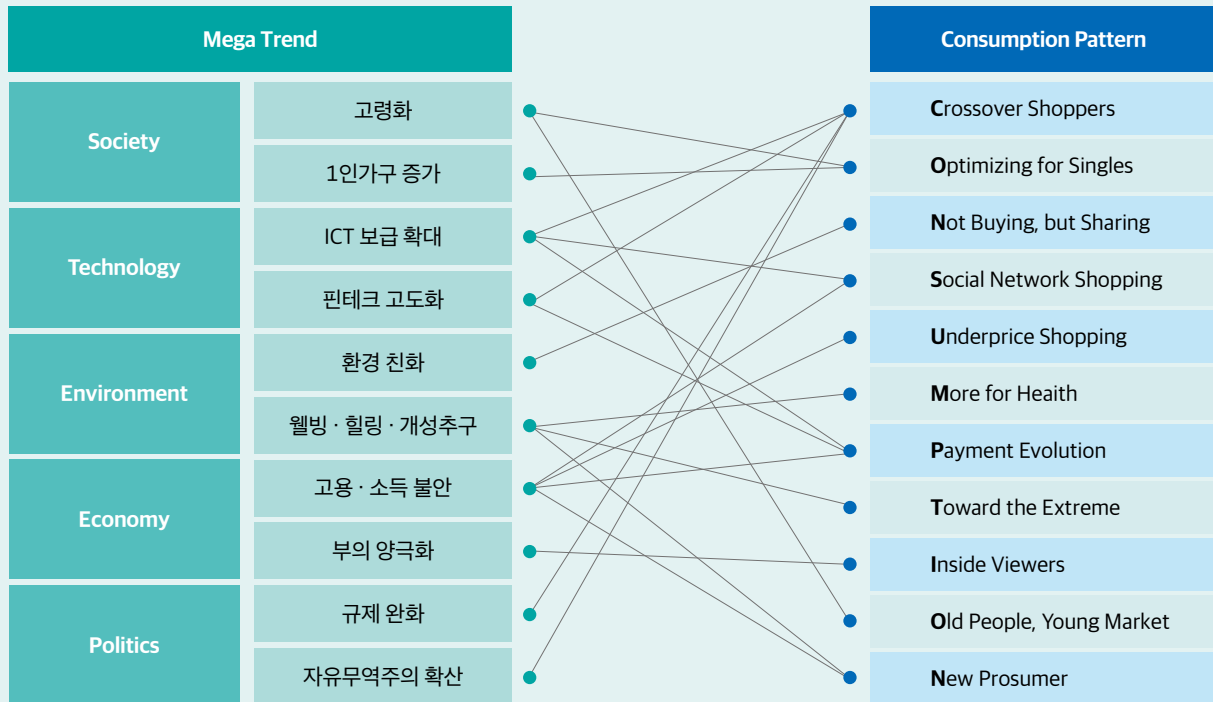


소비자심리지수와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데이터 이용 추계

메가 트렌드와 11대 소비패턴의 변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크로스오버 쇼퍼(Crossover Shoppers), 1인 가구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Optimizing for Singles), 공유경제형 모델(Not Buying, but Sharing), 소셜커머스의 공동구매 등 SNS를 이용한 네트워크 쇼핑(Social Network Shopping), 합리적인 소비 추구(Underprice Shopping)가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떠올랐다.

또한, 웰빙과 행복 추구(More for Health), 간편결제 시장확대(Payment Evolution), 최저가&초고가 등 가격의 극단을 찾는 소비 트렌드 확대(Toward the Extreme), 포장·디자인보다는 품질·성분을 따지는 구매(Inside Viewer), 구매력 지닌 고령인구의 소비시장(Old People, Young Market),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가공하거나 개성을 추구하며 재창조하는 셀프문화 확산(New Prosumer) 등이 11가지 'CONSUMPTION' 소비패턴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소비패턴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장기적으로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패턴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쇼퍼들

을 위해 옴니채널을 구축하고 새로운 결제 방식 도입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1인 가구 및 시니어 세대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개발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SNS 이용이 확산되고 ICT 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 및 사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소비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초고가 및 최저가 등 가격경쟁력이 높은 제품에 집중한 포트폴리오 구축, 웰빙 및 기능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확대 등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의 장기적인 소비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하고, 마케팅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소비패턴의 구조적 변화에 반드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

CONTACT US

삼정KPMG 경제연구원 김광석 수석연구원

Tel. 02-2112-7438 gwangsukkim@kr.kpmg.com

밸류체인간 동맹이 미래 시장의 성패를 좌우한다



삼성KPMG CEO
김교태

CEO COLUMN

프랑스어에 ‘오르 앙트 시앙 이 루(heure entre chien et loup)’라는 표현이 있다.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낮도 밤도 아닌 애매모호한 시간의 경계를 가리키는 말인 황혼을 뜻한다. 최근 급격하게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기업의 피아식별(彼我識別)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와 늑대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통적인 경쟁자가 나의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기업의 경영자는 기존의 경영 사고로는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어렵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수록 경영자는 각 산업 간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피아식별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치사슬로 연결된 타 산업과의 강력한 동맹(Alliance)이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최근 산업간 동맹을 선도하는 것은 단연 IT기업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섬유(Textile)를 통해 스마트기기를 구동시키는 옷감을 개발하였고, 의류의 제조·디자인 기술과 유통채널을 확보한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와 제휴하여 본격적으로 ‘입는 웨어러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커머스(E-Commerce) 기업인 아마존은 물류산업과 로봇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아마존은 로봇회사인 키바(Kiva)를 인수하여 물류센터 창고비용을 20% 절감시켰고, 미래의 배송시스템으로 드론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간 동맹의 중요성은 IT 산업과 타 산업 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산업 간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산업 간 가치사슬을 보면, 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방산업은 정유회사이며, 보다 상류부분에 석유탐사·생산기업이 포함될 것이다. 향후 국제사회가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리튬이온전기차(이하 전기차)나 수소연료전기

차(이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을 강화한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석유를 생산·정제하는 전방산업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래 자동차로 불리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서로 다른 역학관계로 얽혀있다. 전기차의 경우 리튬을 생산하는 광산회사,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배터리 회사, 테슬라·GM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선도회사,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육성정책이 함께 맞물려 있다. 반면 수소차의 경우 수소가스 생산회사, 수소가스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 생산회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도요타가 수소차 개발에 선도적인 지위에 있다. 또한 국가정책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수소차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즉, 미래 자동차 시장의 향방은 단순히 자동차 회사 간, 전후방 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선다. 어떤 유형의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표준이 될 지에 따라 연관 산업의 먹거리도 함께 좌우되는 것이다. 먼저 가치사슬 간 강력한 동맹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고, 그 후에 동일 산업 간 경쟁을 펼치는 것이 보다 큰 그림의 전략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이 에너지, 자동차, 섬유, 물류, 보안 등 각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최근의 변화는 기업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성장기회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먼저 주도하는 것이고, 시장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산업 간 역학관계를 명확히 인지하여 가치사슬 간 동맹을 빠르게 구축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자.**

<본 기고문은 2016년 3월 4일자 조선비즈 '김교태 경영산책' 코너에 게재되었습니다.>

인수합병이 미래 수익에 미치는 영향



Deal Advisory 1본부
조규석 상무이사

ADVISORY

닷컴버블(dotcom bubble)은 1995년부터 2000년에 걸쳐 인터넷 관련 분야의 신생기업들의 주식가치가 실적과는 관계없이 막대한 기대감으로 급속히 상승하게 된 '거품경제' 현상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흔히 '닷컴 기업'이라 불리는 많은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설립되었고, 높은 인수 가격을 통해 인수 및 합병 시장에 등장하였으나 대다수 실패로 끝나 시장에 큰 후유증을 남겼다.

닷컴버블 현상은 이후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회계장부 작성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미국 회계기준에 도입된 '매수법(purchase method)의 의무화'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인수 기업은 피인수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연결 재무상태표상 기재를 의무화했다. 매수법의 의무화 이전에는 인수 또는 합병 시, 인수 기업은 단순히 인수 대가와 피인수 기업의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의 차액을 영업권으로만 인식했고, 일반 투자자는 인수 대가가 무엇을 위해 지불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매수법은 피인수 기업의 경영권이 인수 기업으로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피인수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에 원가주의로 기록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해 인수 대가를 배분하도록 요구하였다. 특히 과거에는 재무제표에 표기되지 않은 브랜드, 기술, 고객관계 등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들도 개별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배분하도록 요구됐다.

지난 2011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 또한 미국 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매수법의 의무화'를 통해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과거 고려되지 않았던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들을 추가적으로 구분해 공정가치로 평가해 인식하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마케팅 관련 무형자산(등록상표, 신문 제호, 인터넷 도메인명, 비경쟁협약 등), 고객 관련 무형자산(고객목록, 주문잔고, 고객계약 등), 예술 관련 무형자산(그림, 책 등의 저술작품 등), 계약에 기초한 무형자산(라이선

스, 로열티, 공급계약, 리스약정, 프랜차이즈 합의, 방송권 등), 기술에 기초한 무형자산(특허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받지 않은 기술 등)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는 피인수 기업의 과거 재무 실적 분석 및 합리적인 미래 예상 수익에 대한 여러 가정과 추정 자료를 기초로 평가된다. 따라서 전체 인수 대가에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인수 시점에 피인수 기업이 보유한 여러 자산들로 인해 인수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간접적인 검증이 될 수 있다. 다만,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 인수 이후 인식해야 하는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해 미래 이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인수 대가의 많은 부분이 영업권으로 귀결될 경우, 인수대가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미래 성장성이나 시너지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새롭게 장부에 인식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의 비중이 작고, 무형자산으로 인한 감가상각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므로, 향후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초기에는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업권에 과도하게 배분된 금액이 미래에 시장 및 경제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일시적인 손상으로 인해 손실이 크게 인식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영업권 및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의 인수 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간접적인 분석 자료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인수 이후 인수 기업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최근 인수나 합병의 결정을 했다면, 현재 시점에 인식될 수 있는 무형자산의 가치와 미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본 기고문은 이코노미조선 145호 4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축하해! 삼성KPMG

Talk! 연결고리

이색삼성★

Purpose Story

가자 세계로!

행복충전소

Samjong News



사랑하는 삼정인을 칭찬합니다!

김태우 S.Manager가 홍성준 Director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함께 협업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멕시코 Korea Desk
김태우 S.Manager



안녕하세요. 김태우 S.Manager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가까운 동료를 만나하고

머~언 멕시코에 파견 중인 저를 칭찬해

주신 이채능 S.Manager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덕에 예쁜 캐릭터 사진 주인공도 되어

신기하면서도 제가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분은 ITC본부의 홍성준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과의 만남은 ITC 본부가 멕시코에 진출한 고객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하면서입니다. 2014년부터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멕시코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국제통상 관련 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시작되면서 ITC 소속 많은 분들이 멕시코에 수차례 출장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동시에 통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 ITC의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고객과 합의한 기일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홍성준 이사님은 수차례 한국과 멕시코를 오고 가면서 프로젝트를 수임하고 인력을 배분하며 기일 내에 수준 높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번 기회로 저는 이사님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한 수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Korea Desk라는 외로움과의 싸움에 시기 적절히 방문하여 한국과 본사 얘기를 들려주며 향수병도 달래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저는 홍성준 이사님께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을 추천합니다. 인도 Korea Desk 시절 우연히 읽고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을 가지게 된 책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멋진 통상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홍성준 Director에게 책 『자기혁명』을 선물합니다!’



『자기혁명』 박경철 지음 | 리더스북

시골의사 박경철이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던지는 자기혁명의 메시지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비판가이며 청춘의 멘토로 떠오른 저자가 지난 6년간 청년들과 나눈 소통과 교감의 기록을 엮었다. 자아찾기, 사회인식, 시간활용, 책임감, 글쓰기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Happy Birthday!

삼정KPMG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L&D 원 일 Manager

삼정KPMG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가장 큰 법인이 되기보다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법인이 됩시다. 파이팅!

PPC 최희진 직원

삼정KPMG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건강한 성장, 신뢰받는 조직,
행복한 일터가 되길
기대합니다!

IGH 허건웅 Senior

삼정KPMG가 없었다면 나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겠지..
소년생 때부터 함께 해줘서 고맙고
생일 축하한다!

IM4 고대유 Associate

삼정KPMG에 입사한 후 짧지만 많은 일이 있었
습니다. 지방출장을 통해 태어나 처음 갔던 곳도 많았고
회식 때 처음 맛본 맛있는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시즌을 겪으
면서 고생했던 일도 있었고, 힘들었지만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성
취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기억은 역시 소중한 사
람들을 알게 되고 친분을 쌓은 일입니다. 사진은 오랜만에 기회가 생겨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이랑 남이섬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으로도
기쁜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테지만 팀원들, 동기
들, 학교 동문들,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IM4본부원들과 함께
라면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봄날의 햇살을 느끼면서 기쁜 마
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삼정KPMG 창립기념일
진심으로 축하하며, 삼정인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소식만 기원하겠습니다.

Deal Advisory 5 김양태 Manager

2: 25년간 대한민국의 회계 ·
세무를 책임져온 삼정KPMG
5: 5천만 국민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삼정KPMG 언제나
감사합니다!”



<Channel>에서는 6월 1일 삼정KPMG의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삼정KPMG 가족이 전하는 축하 메시지 이벤트를 진행했다. 삼정인이 전해온 기쁨과 행복, 감동이 담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자.

Deal Advisory 1
서동철 S.Analyst

삼: 삼 년간 근무하는 동안 인생에
소중한 가르침을 준 삼정KPMG
정: 정말 사감합니다!
Deal Advisory 1본부 파이팅!



Domestic Tax 1 이호재 Associate

삼정KPMG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 14일 삼정KPMG에 입사한 이호재입니다.
꿈에 그리던 우리 삼정KPMG의 구성원이 된 지도 수개월이 지났습
니다. 감사본부에서, 그리고 세무본부에서 일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저는
과연 우리 조직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25년간 쌓아온 명성이 저의 작은 행동 하나로 흠이 가지는 않았나 말입니다.
클라이언트 실무자들을 상대하면서, 저는 신뢰와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작 Engagement Staff이지만, 제 업무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고객과 성장하며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 전문가들의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듯이 우리 구성원 모두가
삼정KPMG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삼정KPMG는
25번째 생일뿐만 아니라 100번째 생일도 맞이하는 장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켜질 삼정KPMG의
가치를 생각하며 생일을 맞이한 삼정KPMG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IM4 남슬범 Associate

삼정 KPMG의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나날이 함께 발전하는 삼정 KPMG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D&Markets
김남우 Analyst

삼정KPMG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지난해 입사하며, 올해
이렇게 창립기념일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삼정KPMG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삼정KPMG 파이팅!
Vision 2020 파이팅!

세상 어디에도 없는 슈퍼우먼, 삼성KPMG 워킹맘



아이를 낳아 기르며 일하는 여성을 직장인엄마 또는 워킹맘(Working Mom)이라 부른다. 삼성KPMG에도 일이면 일, 육아면 육아, 직장가 가정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며 여성 리더로서 승승장구 중인 워킹맘들이 있다. 베테랑 워킹맘들을 만나, 일과 육아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제는 베테랑 워킹맘!

서지희: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 어느덧 워킹맘 27년 차네요. 두 아들 모두 대학을 졸업해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에,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난 아주 행복한 워킹맘이에요. 초보 워킹맘 시절 힘들었던 때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었던 것은 희미해지고, 즐거웠던 순간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노원: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 힘든 것 보다는 행복한 기억이 많이 남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야근과 출장이 잦아 육체적으

로는 많이 힘들긴 하지만요. 야근을 하고 집에 가도 아이가 아파서 울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회사에 간 날도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지금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큰 아들이 고2, 둘째 아들은 중1, 막내딸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죠.

이은민: 제 딸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아직은 시부모님께서 양육에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도 어느덧 훌쩍 자란 귀여운 딸들이 일하는 엄마를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강지운: 저는 이제 막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큰딸과 유치원에 다니는 6

살 딸을 둔 9년 차 워킹맘이에요.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지만, 저 역시도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걱정 없이 법인 생활에 임하고 있어요.

노원: 직장에서 동료, 선후배 등과 함께 협업하며 일하는 것처럼, 육아도 부모님, 남편, 가족, 혹은 유아도우미 등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워킹맘이라면 자녀는 최소 2명 이상은 낳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혼자 지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형제, 자매가 서로 의존하며 잘 지내더라고요.

‘나’뿐만이 아닌 ‘모두’가 겪는 일

강지은: 직장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비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첫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분유도, 이유식도 먹을 수 없고, 오로지 모유만 먹어야 했어요.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 저 역시도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었고요. 아마도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은민: 엄마들은 아이가 아프면 걱정되고, 힘들죠.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아이들 겨울 방학 때 함께 있어 주지 못한 거예요. 감사분부에 있을 당시 감사시즌이 오면 아이들은 겨울 방학인데, 다른 친구들은 가족 여행도 가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가장 바쁠 때라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노원: 워킹맘은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아요. 하지만 힘든 일도 이렇게 공유하면, 혼자만 힘든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돼요. 나만의 고민이 아닌,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이지요. 물론 저도 ‘조금 덜 힘든 곳으로 이직해야 할까?’라고 고민했지만, 이직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워킹맘으로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일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의 가장 가까운 ‘롤모델’이니까요.

서지희: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고 성장하기에, 더욱 노력해야 해요. 더군다나, 워킹맘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엄마로서는 아주 값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선택한 거잖아요. 초보 워킹맘 시절 문득 이 생각이 들고나니, 더욱 제대로 일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자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 워킹맘

이은민: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가족에 집중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을 이용해 국내 여행도 가고, 서로 공감하는 시간도 가져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최고의 엄마’라네요. 직장에서도 팀원, 고객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있으니, 앞으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가정과 일, 두 마리 토끼 잡는 워킹맘이 되고 싶어요.

강지은: 저는 늘 아이 눈높이에 맞춰 ‘엄마의 직업은 회계사인데, 엄마는 이 일을 사랑하니 엄마가 바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줘’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아이들이 100% 공감은 못 하지만 점차 커가며 이해할 거라 믿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일하는 저를 보고, 배우며 아이들도 스스로 행복한 일을 찾으며 성장하면 좋겠어요.

노원: 엄마 스스로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단 말이 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워킹맘이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행복하면 좋겠어요. 또한, 법인 내 여성리더를 키우는 모임인 KNOW(KPMG Netowrk of Women)를 통해 일과 가정에서의 노하우도 공유하고,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당장 눈 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열정, 용기, 자신감을 갖고 함께 이겨내요. 변하지 않는 건 없으니깐요.

서지희: 언젠가 아들이,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들에게 들은 최고의 찬사였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대화하고, 여행하며 추억을 쌓은 보람이 있더군요. 앞으로도 언제나 두 아들에게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엄마로 기억되길, 또 법인에서는 제가 있으므로 인해서 더 나은 조직이 되는 데 기여했으면 해요. 또한 삼성KPMG가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돼 표창을 수상한 만큼 지속해서 남성과 여성의 임직원 비율이 균형을 이뤄, 좀 더 유연하고 소통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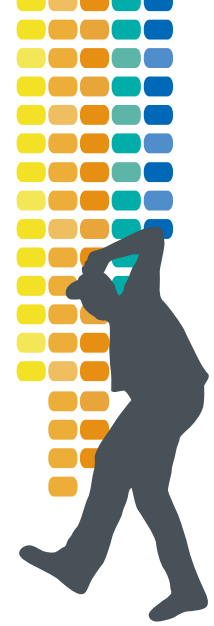
초보 워킹맘을 위한 생생 조언

1.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2.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3.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4. 일하는 엄마로서 자신감을 가져라
5. 지지하고 도움 주는 조력자를 확보하라

춤추는 회계사 ICE2본부 백승인 S.Senior

“Slave To The Rhythm! 리듬에 몸을 맡겨, 함께 자유 느껴봐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튕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춤, 팝핀(Poppin). 대중들에게 ‘팝핀현준’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삼정KPMG에도 팝핀현준 못지 않은 팝핀 댄스 실력자가 있다. 평일에는 회계사로, 주말에는 팝핀으로 자유를 느끼는 ICE2본부 백승인 S.Senior를 만나러 간다.



‘팝핀’, 그 어려운 걸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결심을 하고도, 사흘이 안되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에 ‘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말이 있는 모양이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끝까지 하기 쉽지 않은데, 백승인 S.Senior는 팝핀 댄스를 13년째 해오고 있다. 단정한 정장이 잘 어울리는 그가 힙합 스타일의 옷을 입고 추는 팝핀이란 어떤 모습일까?

“요즘 대세가 바로 힙합이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힙합을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팝핀을 알게 됐고 당시 유명한 비보이 크루, 피플크루가 추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죠. 오락실 펌프 아시죠? 펌프 음악에 맞춰 발로만 춤을 춰도 즐겁잖아요. 한데, 팝핀은 팔과 다리, 몸 전체로 춤을 추니 더 재미있어 보였어요. 당시에는 팝핀을 정말 배우고 싶어 급한 대로 혼자 영상을 보며 독학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후 그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댄스스쿨’부터 찾았다. 6개월



1. 주말마다 2시간씩 팝핀 연습을 하는 백승인 S.Senior 2. 'Funkholics' 10주년 축하 파티 3, 4. 매년 스트릿댄스팀들이 모여 공연을 펼치는 '스트릿라이프'에서 멋진 공연을 펼친 'Funkholics' 5.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스트릿 댄스 행사 'Summer Urban Life'에 참가한 모습

코스로 팝핀을 배우며 실력을 닦았다. “팝핀으로 유명한 팀 가운데 K-OGS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 팀에 속한 분이 바로 제 스승님이시죠. 현재, KAC한국예술원 방송예술과(스트릿댄스전공) 배정인 교수님이세요. 스승님에게 팝핀을 배우고, 함께 춤추는 친구들과 대회도 나가곤 했어요. 놀랍게도 전국 동아리 대회에서 2등도 했죠. 그 후론 계속 준결승 진출에서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요. 하하”

팝핀 is My Life~!

백승인 S.Senior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팝핀을 외면할 수 없었다. “온종일 공부만 하는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또 공부만 계속하면, 머리로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기에 나름의 힐링 시간을 가져야겠다 싶었죠. 열심히 공부하고,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팝핀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야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그는 당시 팝핀 때문에 일어난 웃지 못할 일도 털어놨다. “회계사에 합격하고 난 후 어머니께서 시험 준비를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사실 많이 걱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멀쩡한 티셔츠를 몽땅 반으로 잘라놓은 걸 보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싶으셨대요. 사실, 그 티셔츠...춤 때 땀이 많이 흘려서 눈에 흐르니깐 머리에 묶고 찢거든요. 하하하. 이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께서도 그제서야 웃으시더라고요.”

바쁜 감사시즌에는 춤출 시간이 많지 않아 속상하겠다고 하니, 그는 오히려 춤 때문에 감사시즌에도 기쁘게 일할 수 있다며 웃음 지었다. “시즌에는 아무래도 힘들죠. 힘든 시간이지만,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난 후 친구들과 춤추며, 시원한 맥주 한잔 할 생각하면 오히려 힘이 나더라고요.”

힘든 수험생 시절에도 회계업무를 하는 지금에도 그에 삶에서 팝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그는 음악을 듣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 옆에 사람이 놀란 적도 있을 정도란다. 그에게 ‘팝핀 is 원들’이란 말이 딱인 듯하다.

좋아하는 것 즐기며, 일과 삶 균형 맞춰요

팝핀을 오랜 시간 해올 수 있었던 큰 힘 중 하나가 바로 그의 팀, ‘Funkholics’ 덕분이다. 대학교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 7명이 속한 팀으로 1년에 3-4회 정도 공연도 하고 있다. 팀에는 방송국 PD부터, 스트릿댄스 교수, 프로그래머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팝핀’으로 하나 되어 즐기고 있다.

“2014년에 팀이 10주년을 맞이했었어요. 10년이란 시간이 짧지만 긴 시간이기도 하고, 대학교부터 해왔던 팀 활동이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어오고 있다는 게 기뻐고,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6. 13년을 함께한 Funkholics 팀원들과 함께! 7. 백승인 S.Senior의 길거리 공연 모습

팀원들과 10주년이 된 기념으로 자축파티를 열었어요. 주변의 친구들과 팝핀을 좋아하는 분들을 초대했죠. 입장료는 본인이 마실 술 하나, 그리고 우리 팀에게 줄 술로 받았죠. 그날 기쁜 마음으로 다른 팀과 배틀(Battle)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는 팀원들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팝핀을 가르쳐 배틀도 하고 함께 나이 들어서도 평생 팝핀을 즐기자고 약속했단다. 특별히 그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이게 그의 비결이 아닐까 싶다. 좋아하는 걸 찾고 즐기다 보면 일에 대한 새 활력과 그만큼의 성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백승인 S.Senior는 팝핀에서 얻은 긍정 에너지로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Work & Life Balance를 톡톡히 맞춰가는 멋진 삶을 살아갈 계획이다. 끝으로 열정 넘치는 그의 팝핀 실력이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FUNKHOLICS BOOGA100’을 (<https://youtu.be/s0maMqUNj2M>)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백승인 S.Senior가 전하는 팝핀 댄스 입문자에게 전하는 조언

“팝핀을 흔히 관절끼기 댄스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많지만 관절끼기가 아닌 신체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추는 춤이에요. 음악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기에, 그날의 감정의 따라 다양한 춤을 추 수 있죠. 팝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독학이 아닌 전문 스트릿댄스 학원(EX. Urban Play, Trip Studio, Level 6 studio 등)에서 배워보시길 추천할게요.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면 아마 엄청난 실력자가 되실 거예요!”

★ 이색삼정스타를 소개해주세요!

삼정KPMG에서 만난 동료와 선후배 중 남다른 취미 활동과 흥미로운 경력을 소유한 이색삼정스타를 소개해주세요. <Channel>에서는 칼럼 ‘이색삼정스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생활하는 삼정인을 소개합니다. 추천 해주시는 삼정인에게 소정의 상품을 선물해드립니다.

*문의 BD&Markets 홍보팀 김수지 대리 sujikim@kr.kpmg.com/ 02-2112-7567

Our Higher Purpose

삼정KPMG는 신규입사자, New Joiner를 위한 On-boarding Program을 KPMG Story를 담은 'Value Day'로 새롭게 바꿨다. 이들이 어떤 Story를 함께 공유했는지, New Joiner들과 함께한 'Value Day' 현장을 찾아간다.



Welcome to 삼정KPMG!

신규입사자가 만드는 KPMG Story, Value Day!

Purpose를 시작으로 Value, Vision, Strategy, Promise의 5가지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프레임이 바로 KPMG Story이다. KPMG Story는 삼정KPMG의 임직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이야기로 구성된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입사하는 New Joiner들과 삼정KPMG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5월 23일, 삼정KPMG 교육장에서는 New Joiner를 위한 On-boarding Program, 'Value Day'가 열렸다. 1day로 진행되는 Value day의 첫 시간에는 New Joiner 간의 Networking과 법인소개가 진행됐다. Ice-breaking을 통해 앞으로 KPMG에서 함께 일할 소중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삼정KPMG의 역사와 자부심을 느껴볼 수 있었다.

Value Day의 세션은 KPMG Story의 5개 요소를 차례대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Purpose 세션에서는 각자가 삼정KPMG에 입사

한 이유를 들어보고, 개인의 Purpose와 KPMG의 Purpose를 함께 생각해보았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Value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Compliance 사항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본 Value 세션, 한 조는 '항상 보이는 곳에 7values를 붙여놓고 생활하겠다'는 Action Plan을 계획하기도 했다.

Vision & Strategy 세션에서는 우리의 Vision인 'The Clear Choice'가 어떤 모습인지 New Joiner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함께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 가고자 다짐했다. 또한, New Joiner들은 Value Day를 통해 나눈 KPMG Story를 팀별로 발표하고, 앞으로 삼정KPMG에서 함께 Story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는 Sign을 했다.

이번에 진행된 새로운 Value Day,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삼정KPMG가 존재하는 이유, Purpose를 느끼고, Value를 내재화하고, 'To be the Clear Choice' 우리의 Vision을 함께 공유하고, 소중한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날로 마무리됐다.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New Joiner 미니 인터뷰!

Question

1. KPMG Story를 알아가는 Value day, 어땠나요?
2. KPMG에 입사하며 정한 Purpose는 무엇인가요?



MCS1 윤정준 Director

1. 신규입사자를 위한 회사의 규정 또는 회사생활 Guide 같은 일상적인 자리가 아니라, KPMG가 추구하는 Story를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조직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각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입사한 KPMG New Joiner들이 각자의 Purpose를 시작으로 KPMG 구성원으로서 핵심가치를 내재화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항상 클린하고 활기찬 조직 이미지를 가진 KPMG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팀으로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고자 하는 막연한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이번 Value Day를 통해서 '에너지 넘치는 프로페셔널'을 저의 Purpose로 생각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족과 이웃에 큰 행복을 주는 것처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ICE1 김동건 S.Senior

1. Value Day를 통해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고 법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Purpose 교육을 통해 우리가 전문가로서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 11년 KPMG에 입사 후 4년간 감사업무를 하다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과 새로운 업무에 대한 호기심으로 1년 여간 다른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오히려 외부에 있으면서 감사보고서의 중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었고, 다시 삼정KPMG 감사본부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감사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저의 Purpose로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일하고자 합니다.



중국 Korea Desk 광동규 Manager

광활한 대륙의 나라, 중국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국은 오랜 역사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중국의 모습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등 그간 몰랐던 중국의 모습을 광동규 Manager를 통해 살펴본다.



중국 상해의 전경. 아시아 최대 높이의 건축물 중 하나인 동방명주도 보인다

| 때려야 뗄 수 없는 나라

수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국가는 어디일까요? 오래전에는 모방하고 따라가야 할 국가에서, 한때는 총칼을 맞대고 싸웠던 적국의 동맹국에서, 이제는 문화와 기술의 선진국으로 따돌려야 하는, 그렇지만 소비시장은 이용해야 하는 애증(?)의 관계인 국가가 바로 중국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中은 가운데를 뜻하는 만큼, 세상의 가운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부분에는 이미 중심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 시장에서도 머지않아 중심으로 나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너무나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국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상당 부분 겹쳐지는 장소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후통거리에서의 허름한 행상의 모습과 조금 벗어난 곳에 우주선을 닮은 기묘한 빌딩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이지만 현실에서 공존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도시 외관의 과거의 모습을 보존해야 할지, 최첨단(변화)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는 중국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문화대혁명이라는 엄청난 변화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으며, 중국인 앞에서는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금기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중국의 근대사에 대한 연구

는 중국 내부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도,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종합편성채널에서 도올선생의 강의가 상당 부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화중심사상, 많은 사람과 차(茶)의 나라. 그리고 대기오염

동양문화의 맹주를 꼽아보라고 하면 중국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정 규모의 영토 내에서만 수천 년 간 통일과 분열을 반복해온 중국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신기한 국가입니다. 아주 오래전 만들어진 화석과도 같은 상형문자인 한자를 지금도 유지해오며 이웃 국가(한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도 상당부분 활용하고 있는 점 역시 신기합니다. (비슷한 상형문자인 이집트 벽화문자를 계속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

또한 중국은 남북, 동서로 상당부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만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기질) 때문일까요? 다른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을, 그리고 때로는 오만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거리 고속열차를 탔을 때 앞 좌석의 승객이 거침없이 좌석을 뒤로 젖히는 바람에 접이식 책상 위의 캔커피를 쏟을 뻔한 기억부터, 너무나도 당연한 일반도로 상 역주행 차량, 보행자의 무단횡단 모습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광대한 국토뿐 아니라 사람도 많은 중국은 특히 대도시에서의 러시아워는 한국보다 더욱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플랫폼에서 만원 지하철을 두 번 정도 보내고 겨우겨우 끼어서 타고 출근하면 진이다 빠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중국도 대도시 위주로 발전한 경향이 있어서 유명한 학교를 다니기 위한 학생부터, 직업을 구하기 위한 농민공까지 계속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명절을 포함한 각종 연휴에는 인구 이동이 상당해서, 연휴에는 절대 유명 관광지에는 가서는 안 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사람들은 차(茶)의 종주국답게 언제 어디서나 차를 즐깁니다. 그래서 늘 플라스틱병을 손에 들고 다니는 중국인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공공장소(기차역, 열차 내부 등)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차의 재료도 꽃송이(국화꽃 등)부터 각종 이파리 열차, 대추알같은 열매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좋지 않은 이미지 중 하나가 대기오염의 오명입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 이후부터 세계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중국은 해외에서 얻은 가장 수치스러운 오명 중 하나를 대기오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경을 비롯한 대도시

들은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염배출시설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 배치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중국당국에서 선정한 제13차 5개년계획(2016~2020)의 5대목표 중 하나로 환경 부분을 선정,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Big4 중 가장 먼저 진출한 Korea Desk

KPMG 중국은 Big Firm 최초로 23년 전 중국 내 Korea Desk를 설립하여, 한국 기업 특성과 문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Korea Desk는 감사 · 세무 · 상장자문 · 경영위험관리서비스 · 구조조정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당면한 통관 · 외환 · 세무 및 기타준법위험에 대한 자문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및 세무 자문업무에 대하여 단순 Coordination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실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토에서의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홍콩에서의 금융 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 된 중국에서 앞으로도 중국 Korea Desk는 한국 기업에 해당하는 정보와 이슈를 적시에 전달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게 통합된 KPMG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CONTACT US

중국 Korea Desk 광동규 Manager
Tel. +861085087491 E-mail. dongkyu.kwak@kpmg.com



1. 중국 Korea Desk 광동규 Manager의 모습, 2. 세계 최대의 황궁, 베이징 고궁(자금성), 3.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다기능 복합빌딩 갤럭시 소호

확~ 달라진 삼성KPMG! 그 기분 좋은 변화 속으로

1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새 공간, 새 출발!

Main Office 이전 및 사무 공간 리뉴얼

지난해 12월 4일, 삼성KPMG는 2000년부터 지내온 강남파이낸스 센터(GFC) 10층에서 27층으로 Main Office를 이전하며, 임직원들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은 모던한 인테리어로 단장했다.

또한, ▲Purpose ▲비전 ▲솔선 ▲협업 ▲존중 ▲통찰 ▲소통 ▲공헌 ▲정직 ▲신뢰 ▲열정 ▲혁신이란 이름으로 임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공간, 공용회의실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GFC 9층과 성공빌딩 2층에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했다.



삼성KPMG Main Office Reception



혁신의 공간, Purpose/비전 회의실

2

임직원이 즐겁고 행복한 일터

임직원 휴게 공간 및 직원 식당 오픈

삼성KPMG는 임직원들 모두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무려 4곳이나 생겼다. GFC 27층에 마련된 ▲하늘(Sky) 라운지, 10층의 ▲바다(Ocean) 라운지, 9층의 ▲호수(Lake) 라운지 그리고 성공빌딩 1층에 위치한 ▲숲(Forest) 라운지이다. 라운지에는 식빵과 바나나, 계란 등의 간식과 커피 원두 머신을 비롯해 시원한 음료와 물을 준비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라운지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숲 라운지에는 안마의자실이 마련돼, 임직원들이 누적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4일에 성공빌딩 지하 1층 구내식당이 '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오픈해, 임직원의 건강과 맛을 책임지고 있다.



쉼과 여유를 안겨줄 바다 라운지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원 식당 '정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삼성KPMG는 본사 이전 및 사무실 환경 개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과 임직원들의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춰줄 휴게 공간을 오픈해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새 공간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삼성KPMG의 기분 좋은 변화를 다양한 사진으로 함께 만나본다.

3 글로벌 인재양성의 집합소! 국내 학자의 호로 새롭게 마련된 교육장

지난 5월에는 인재양성을 위한 새 공간인 삼성KPMG 교육장을 오픈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학자의 호로 이름을 얻은 ▲세종 ▲율곡 ▲다산 총 3개의 교육장으로 마련됐다. 이 교육장을 통해, 삼성KPMG는 임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때로는 고객에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는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KPMG의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노력한 이들이 있다. 바로 총무 관재팀(한준길 과장, 백호열 대리, 경남선 직원, 성경훈 직원)으로, 이 팀은 지난 FY2016 사업전략 발표회 당시 인테리어 공사 및 이전 작업을 수행하며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에 'Innovator of the Year'를 수상했다. 한편, 새 공간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삼성KPMG는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새 교육장에서 진행한 Audit 직무교육 현장



변화가 좋다! 삼성인이 느낀 새로운 삼성KPMG

황성재 Associate(DPP-IRM)

“성공빌딩 1층에 위치한 숲 라운지에는 식빵, 음료수 등 먹을 간식이 잘 마련되어 있고 말끔한 인테리어와 쾌적한 환경으로 기분 좋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 중 휴식이 필요할 때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환 Manager(Domestic Tax1)

“휴게 라운지가 있기 전에는 노숙자(?)처럼 건물 여기저기 태양을 피해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요즘은 라운지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쉴 수 있어 좋습니다. 올해 본부 워크숍을 숲 라운지에서 했는데, 딱딱한 교육장에서 진행된 작년에 비해 자유롭게 라운지에서 앉아 사업전략 발표도 하고 향후 비전에 대해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민석 Senior(CM)

“업무 중간에 간단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곳에 마련되어, 업무와 삶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많은 이동 없이도 편하게 쉴 수 있고, 다시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 좋습니다.”

구해란 Associate(Domestic Tax2)

“이번에 새로이 마련된 교육장에서 Audit 직무 교육을 들었는데, 예전보다 교육장이 더욱 쾌적해졌고, 교육 시설 등이 잘 갖춰진 환경에서 교육을 들 수 있어 집중이 잘되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장 이름이 우리나라 대표 학자들의 호로 지어져,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SPECIAL NEWS

‘FY15 EF온라인스쿨 연간학습우수자 시상식’ 개최



삼성KPMG는 임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중 하나로 KPMG Global 제휴업체인 EF(Education First)의 온라인 스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에는 임직원 휴게공간, 바다 라운지에서 ‘FY15 EF온라인스쿨 연간학습우수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연간학습우수자는 레슨 40%, 회화수업 30%, 작문 20%, 학습시간 10%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선정됐으며, 최우수 학습자 상위 2명에게는 해외연수 1주의 기회를, 우수 학습자 차상위 2명에게는 최신형 태블릿 PC를 선물했다.

이번 최우수 학습자는 ▲신은미 S.Manager(JP, 일반 학습자) ▲문범주 Associate(JP, GEP)가, 우수 학습자는 ▲채수왕 S.Senior(TAX, 일반 학습자) ▲권미정 Senior(B&F2, GEP)가 선정됐다.

한편 삼성KPMG는 FY16에도 임직원들의 글로벌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EF온라인스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학습목표 달성 시, 수습 회계사 및 전문직 신입직원 1, 2년 차는 Global Elite Program의 필수 과정으로 교육비용 100%를, 희망 임직원들에게는 50%의 영어 교육비용을 지원한다.



“FY2016 EF온라인스쿨에 도전하세요”

뛰어난 영어 실력도 갖추고, 푸짐한 선물의 혜택까지!

하나, 연간 최우수 학습자(1명) 해외연수 제공

연간 최우수 학습 참여자에게는 영국 캠브리지 또는 미국 보스턴 해외연수 1주일 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기간 종료 후 발표 예정)

둘, 분기별 우수 학습자(3명)에게 상품 제공!

각 분기별 학습 우수자 3명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 문의: L&D 이서빈 대리(02-2112-3076)



FY2015 학습 우수자에게 듣는 EF온라인스쿨 체험 스토리

“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외국어는 늘지 않기에, 조금이라도 자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야근을 하지 않으면 저녁시간에 학습을 하거나, 자기 전에 또는 주말을 활용해 영어학습을 했습니다. 회화를 무제한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S.Manager 승진자 연수 때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이번에는 수상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지속적인 학습으로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학습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가 있으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은미 S.Manager(JP)



“감사본부 특성상 지방출장이 많아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법인에서 지원하는 EF온라인스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생활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학습도구는 주로 태블릿과 노트북으로 활용했습니다. 1:1회화 20분 수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회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십 번의 수업으로 자신감이 붙어 현재는 두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 주제도 미리 공부한 내용으로 이뤄지기에 충분히 준비하고 학습에 임할 수 있습니다. 생활 영어나 스피킹에 자신 없는 삼정인에게 추천합니다.” **문범주 Associate(JP)**

“연간학습우수 해외연수 시상이 동기가 되어 학습하게 됐습니다. 틈틈이 태블릿, 핸드폰을 활용해 학습했고, 출퇴근 지하철에서도 학습했습니다. 또한 사내에서 시간이 날 경우 어휘, 문법 위주로 학습을 진행하고 말하기 수업은 집에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상 소식을 알고 난 후 본부장님께서 칭찬과 독려도 많이 해주셔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투리 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수왕 S.Senior(TAX)**



“당장 업무에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레슨씩 하려고 노력했고, 개인시간 중 틈틈이 10분씩 학습을 했습니다. 바쁜 시즌을 피해 몰아서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타 어학원의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해봤을 때 콘텐츠가 더욱 우수했고 이미 학습한 내용도 언제든지 다시 수강이 가능하여 스스로 학습하기가 좋았습니다. Junior(1-2년차)에는 학습할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Senior 이상으로 올라가면 시간 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1:1 수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권미정 Senior(B&F2)**

MONTHLY NEWS

삼정KPMG, 김교태 CEO 재선임



삼정KPMG가 5월 25일 정기
사원총회를 열어 김교태 CEO
를 재선임했다. 김 CEO는 이
번 재선임으로 앞으로 5년 간
삼정KPMG를 계속 이끌게 됐
다. 김교태 CEO는 그간 도전
과 혁신의 기업문화 확립을
통해 삼정KPMG의 질적·양
적 성장을 견인해왔으며, 회

계업계 위상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일
구어왔다. 특히, 지난해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를 출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
해 업계를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교태 CEO는 “삼
정KPMG가 차별화된 전문성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건강한 성
장을 지속하고 회계업계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
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힘쓰며, 업무환경 개선, 해외교육 확
대, 업계 최고의 보상을 통해 삼정KPMG를 가장 일하고 싶은
회계법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삼정
KPMG는 중장기 사업전략인 ‘Vision 2020’을 수립하고, 핵심
가치인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을 달성해 갈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이번 CEO 재선임으로 안정적인 리더십
하에 ‘Vision 2020’ 전략이 강력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Real Estate Tax Presentation’ 개최

5월 12일 삼정KPMG 교육장에서 KPMG Tax가 주관한 ‘Real
Estate Tax Presentation’이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영국, 독
일, 호주, 일본의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조세제도, 투
자효과,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의 세무적 유의사항 등에 관해 설
명했다. 각국의 Tax 파트너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했으며, 국내 투
자자들의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삼정KPMG,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업계 유일 선정

삼정KPMG가 지난 5월 25일 업계에서 유일하게 ‘2016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남
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고용기회 평등,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
의 양립지원, 인력활용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을 종합 평가해 남
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기업을 선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삼정KPMG는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
야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삼정KPMG는 전체 임
직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17.7%)보다 높
은 27.6%로 나타났고, 이사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업계
평균(7.2%)보다 높은 7.9%를 기록했다.



삼정KPMG TAX,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 발간



5월 30일, 삼정KPMG TAX는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를
출간했다. 이 책은 완전포괄주
의 개념의 변화를 소개하고, 새
롭게 도입된 일감 떼어주기 과
세규정과 개편된 일감 몰아주
기 과세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
지, 과세 요건별 내용, 사례별

계산방법,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담고 있다. 가업승계
나 재산승계의 Needs가 있는 고객(재산가)뿐만 아니라, 사업
(사업기회 포함)의 이전행위가 수반된 기업구조개편을 진행할
경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Vision 2020 실현을 위한 화합의 장, 'FY2016 Partners' Workshop' 열려

삼정KPMG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전라남도 목포와 해남에서 'FY2016 Partners' Workshop'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파트너들은 법인의 'Vision 2020: The Clear Choice'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Function과 본부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여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Audit Committee Handbook 교육 프로그램 진행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지난 5월 20일, 기업의 감사위원과 감사를 위한 Audit Committee Handbook 교육 프로그램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Audit Committee Handbook』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업지배구조,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 위원회 운영 및 감사위원회 활동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Contact: ACI 리더 김유경 상무 youkyoungkim@kr.kpmg.com



삼정KPMG-해군본부 재정병과 자매결연 협약식

삼정KPMG는 6월 3일, 본사에서 해군본부 재정병과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식으로 삼정KPMG는 우수한 군 미필 공인회계사의 해군 입대를 추천하고, 해군 측 장병, 군무원 및 군 가족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관련 금융/경제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군본부는 삼정KPMG 출신 자원들의 해군 입대 자원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해군부대, 함정견학 등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삼정KPMG의 사회공헌에 해군 재정병과원도 함께 참여하여,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NOTICE

▶ 제2회 삼정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 (ACI) 세미나

- 주제 :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 방향
-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 13:30 ~ 16:00
- 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
- 문의 : 강환우 부장 (02-2112-7728, hwanwookang@kr.kpmg.com)
엄수진 선임연구원 (02-2112-7608, sujineom@kr.kpmg.com)

Time	Agenda	Speaker
13:30 ~ 14:00 [30분]	참가자 등록	
14:00 ~ 14:05 [05분]	인사말	김교태 CEO (삼정KPMG)
14:05 ~ 14:35 [30분]	Session I 강화되는 법·제도 환경하의 감사위원회 역할	이만우 고려대 교수 (신한금융 감사위원장)
14:35 ~ 15:05 [30분]	Session II Global audit committee practices: Operational excellence	Jose Rodriguez (KPMG Global ACI Head)
15:05 ~ 15:35 [30분]	Session III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 방향	김유경 상무이사 (삼정KPMG ACI Leader)
15:35 ~ 15:50 [15분]	Q&A	
15:50 ~ 16:00 [10분]	맺음말	서원정 감사부문 대표 (삼정KPMG)

This is what we believe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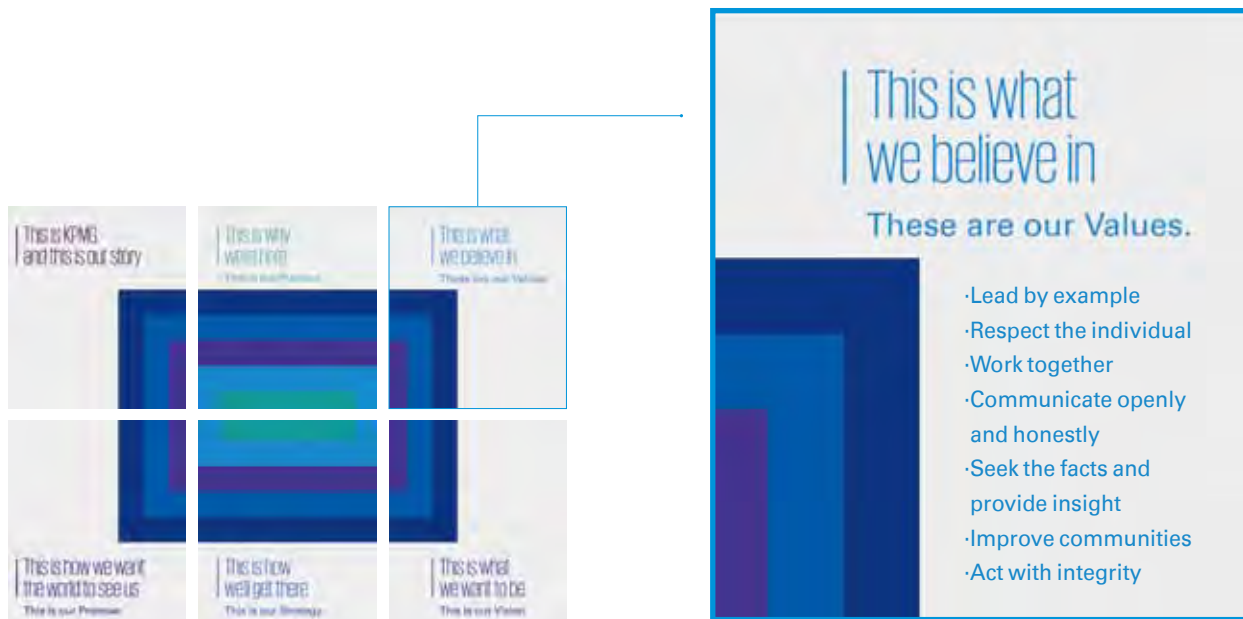
These are our Values.

KPMG의 7Values는 **솔선수범, 존중, 협업, 소통, 통찰력, 공헌, 정직성**입니다.

7Values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준수하며 일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업무와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7Values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KPMG가 전 세계에 일관된 문화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